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과 다양성이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mily Friendliness and Diversity of Support Services for Child
Development and Parenting on Parental Satisfaction with Services*

박주희(Ju Hee Park)¹⁾

최혜영(Hye Yeong Choi)²⁾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four aspects of family friendliness (i. e., safety, accessibility, convenience, and amenity) and diversity of services designed to support children's development and parenting on parental satisfaction with servic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mprised 259 parents (214 mothers and 45 fathers) who had at least one child aged 0 to 11 and lived in Seoul, Gyeonggi-do, Chungcheong-do, or Gyeongsang-do Provinces.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ur results indicated that the effects of family friendliness and diversity of services on parental service satisfaction differed by children's developmental level. For parents of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the safer the services and the more services they used, the more they we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e services provided. In contrast, the safety and the amenity of services had positive influences on parental satisfaction with support services for parents with toddlers while the safety had a significant effect for those who had preschoolers.

* 본 논문은 2012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발표논문과 2010년도 가정관리학회 지원 춘계학술대회 주제발표논문을 확장하여 재구성한 것임.

¹⁾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²⁾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e Yeong Choi,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Changwon University, 20 Changwon University-Ro, Changwon city 641-773, Korea
E-mail : flora@changwon.ac.kr

Keywords :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services for child development and parenting), 가족친화성(family friendliness), 서비스 이용만족도(satisfaction with services).

I. 서론

현대 사회에 들어와 가족 구조와 함께 자녀 양육 환경이 다양화되면서 아동의 최적의 발달을 위한 책임이 부모와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도 아동의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Park, 2012).

인간발달 생태학적 접근에 기초한 상호교류 모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아동기의 발달은 하나의 특정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영향과 지역사회나 경제적 요인의 간접적인 영향 등 다양한 맥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므로(Sameroff & Fiese, 2000) 아동 발달에 대한 지원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별개의 문제로 구분하기 보다는 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동발달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나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아동의 잠재적인 발달상 문제들을 예방하고, 아동이 가진 발달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과 지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Park, 2012).

최근에는 맞벌이 부모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취학 전 모든 아동들에게 무상교육과 보육이 실시되면서 기관이나 센

터중심의 아동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다수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교육, 선별 등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비단 영유아를 자녀로 둔 가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보육과 교육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학령기 아동 역시 학교교육 이외에 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경험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며(Shin & Suh, 2010), 부모 역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녀를 편리하게 양육하고 지원하기 위한 환경여건을 필요로 한다(Hong, Kim, & Ryu, 2007; Lee, Kim, Lee, Kwak, & Chung, 2009). 즉 발달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는 영유아기에서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아동은 심리적·신체적으로 양육자에게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뿐 아니라 그 부모와 가정에 대한 지원까지 동시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Guralnick(1998)는 조기중재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면서 영유아와 가족이 당면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발달적 지원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를 설명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족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실제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아동의 발달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 뿐 아니라 아동이 속한 가족 및 사회적

환경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가족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설치와 개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아동발달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관점에서 만족할만한 프로그램인지의 여부가 서비스의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만족도의 중요 지표 중 하나로 간주되는 발달지원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낮다는 최근 연구결과(Hong, Kim, Ryu, Souma, Cho, & Jin, 2007)는 아동발달과 양육 지원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 이용대상인 가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이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아동발달과 자녀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뿐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생활환경조성을 자녀양육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하기 용이하며, 위생적이고 쾌적한 지역사회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들이 사회문제를 극복하고자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을 제시한 배경과도 일맥상통한다(Park, 2006).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핵심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Hong, Kim과 Ryu(2007)와 Shin(2010)은 이와 같은 환경을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이라

고 개념화하였고, 이는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가족친화적 양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발달을 촉진하고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가족의 실제적인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구성에 대해 연구한 Hong, Kim과 Ryu(2007)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지역 내 아동관련 시설의 접근성, 안전성, 편리성을 비교적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친화적인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 이용률이나 이용만족도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만약, 서비스의 소비자인 부모들이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 이용률이 낮아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해당 서비스는 아동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방안의 가족친화적 특성이 이용만족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고 있는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에 대한 부모들의 지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지각과 실제 이용만족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가 이용하고 있는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특성이 서비스 이용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친화적 특성 이외에 아동발달과 양육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실제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개별적인 서비스가 이용자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과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용만족도와 그에 따른 서비스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부모와 자녀의 요구가 반영되는 다양한 지원체계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Lee, Hong, Seo, Chung, Kwon, Lim, & Shin, 2011). Hong, Kim과 Ryu(2007)와 Hong, Kim, Ryu, Souma, 등(2007)은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보육과 유아교육기관, 놀이터나 공원 등 가까운 거리의 안전한 놀이공간, 공원 및 지역사회 휴식공간, 어린이 도서관,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프로그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때, 발달과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자녀가 속한 발달주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Lee 등(2011)은 수요자 입장에서 본 양육지원체계의 요구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영아기 자녀의 부모들은 자녀와의 애착형성을 위해 가정 내 양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할 수 있는 대리양육자에 대한 요구, 시간제보육서비스, 자녀양육지원센터 등과 같이 자녀양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반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확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 연장이나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확대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습과 과외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 방과전·후 자녀의 교육 및 보육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내 상담프로그램 등의 이용을 원하고 있어 영아 및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요구와는 차별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연령집단 별로 차별화된 요구 내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이 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규명된다면, 지원체계의 추후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어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실태를 알아보고, 부모들이 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인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이때 아동발달 및 양육과 관련된 서비스의 이용실태는 자녀가 속한 연령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녀의 연령집단을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학령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가족친화적 서비스 특성과 서비스의 다양성이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이용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족친화적 특성을 반영한 아동발달과 양육 지원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나아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양육 지원을 통해 가족의 기능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이용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과 다양성은 부모의 서비스 이용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부모 259명(어머니 214명, 아버지 45명)이었으며, 편의 표집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째, 응답자 중 어머니가 82.6%, 아버지가 17.4%로 나타나 어머니가 응답자의 다수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연령은 31세~40세가 171명(66.0%)으로 30대가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37.07세($SD = 5.01$)였다. 맞벌이 여부의 경우, 맞벌이 가정이 129가구(49.8%)였고, 외벌이 가족이 130가구(50.2%)로 두 유형의 비율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163명), 고등학교 졸업(68명), 대학원 졸업(28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경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 = 259)

Category	Frequency(%)	Category	Frequency(%)			
Province	Seoul	96(37.1)	Age of respondent	21~30	20(7.7)	
	Gyeonggi	28(10.8)		31~40	171(66.0)	
	Chungcheong	54(20.8)		41 and above	68(26.3)	
	Gyeongsang	81(31.0)	Dual income household	Yes	129(49.8)	
Respondent	Father	45(17.4)		No	130(50.2)	
	Mother	214(82.6)	Monthly household income ^a	200 less	16(6.2)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	200~400	144(55.6)
		High school		68(26.3)	400~600	71(27.4)
Under- graduate		163(62.9)		600 above	28(10.8)	
Graduate		28(10.8)	Age of target child	0~2	84(32.4)	
Number of children	1	86(33.2)		3~5	81(31.3)	
	2	135(52.1)		6~8	94(36.3)	
	3	34(13.1)		Child's gender	Boy	146(56.4)
	4	4(1.5)	Girl		112(43.2)	
No response	1(0.4)					

^a Monthly household income given in 10 thousand Korean Won.

명) 순이었다. 월 평균 가구수입은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가 55.6%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중 135명(52.1%)은 두 자녀 가정이었으며, 86명(33.2%)은 한 자녀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응답한 부모의 자녀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에 있어서 남아가 146명(56.4%), 여아가 112명(43.2%)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많았다. 영아기에 해당하는 0~2세 자녀가 84명(32.4%), 유아기에 해당하는 3~5세 자녀가 81명(31.3%), 초등학교생인 6~11세 자녀가 94명(36.3%)이었고, 평균 연령은 6.49세($SD = 3.41$)였다.

2. 연구도구

1)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

부모가 이용하고 있는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에 대한 가족친화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Hong, Kim과 Ryu(2007), Hong, Kim, Ryu, Souma, 등(2007)과 Shin(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에 대한 10개의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족친화적 특성이란 서비스가 안전하고, 접근하기에 용이하며, 이용이 편리하고, 쾌적한 것을 의미하며, 서비스의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의 4개 하위 영역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자녀를 위한 양육 및 교육시설은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등과 같은 안전성 3개 문항, ‘이용할 수 있는 양육 및 교육시설이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등 접근성 2개 문항, ‘자녀를 위한 문화시설 및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까?’ 등 편리성 3개 문항,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양육 및 교육시설은 위생적이고 쾌적합니까?’ 등 쾌적성에 관한 2개 문항이었다. 각 문

항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지원서비스의 해당 특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하위 특성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안전성 .74, 접근성 .79, 편리성 .82, 쾌적성 .75로 나타났다.

2)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다양성

본 연구대상 부모가 얼마나 다양한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구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Hong, Kim과 Ryu(2007), Hong, Kim, Ryu, Souma, 등(2007)이 사용한 질문지를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영유아와 초등학교생 자녀를 둔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 11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11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어린이집, 시간제 및 야간보육, 방과 후 보육, 방과 후 교육활동, 어린이도서관, 옥외놀이 공간, 가족공원, 가족레저시설, 자녀 돌봄 프로그램, 가족상담 프로그램, 영유아 및 아동 건강관리 프로그램이었다. 부모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들로 하여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환경 내에서 각각의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예’(1점) 또는 ‘아니오’(0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한편 11개 서비스 항목 중 7개 항목은 영유아기 자녀와 학령기 자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고, 어린이집과 시간제 및 야간보육은 영유아기 자녀에게만, 방과 후 보육과 방과 후 교육활동은 학령기 자

녀에게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결과적으로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자녀의 경우 동일하게 각각 9개의 서비스 항목의 이용 경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 다양성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용하는 아동발달이나 양육 지원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함을 의미한다.

3)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만족도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고 양육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아동발달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만족도, 과외활동 또는 프로그램 만족도, 자녀를 위한 지역사회 문화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만족도, 지원서비스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것이었다. 이상의 4개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사회 센터, 초등학교, 교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자들이 편의 표집방식을 적용하여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연구목적 설명 후 동의한 부모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66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고 그 중 404부가 회수되어 61%의 회수율을 보였다. 응답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59부의 질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동 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비스의 종류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가족친화적 서비스 이용만족도의 경우, 연령집단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과 이용서비스의 다양성이 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분석

1.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이용실태

본 연구의 측정 변인인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 다양성, 그리고 서비스 이용만족도를 통하여 살펴본 지원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 가족이 이용하는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을 제시하면 Table 2와 같다. 네 가지 하위요소인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별로 문항평균점수는 4점 척도에서 각각 2.88, 2.49, 2.58, 2.66점이었다. 이는 2점인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3점인 ‘그런 편이다’의 중간에 해당하는 점수로 본 연구대상 부모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원서비스의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중간정도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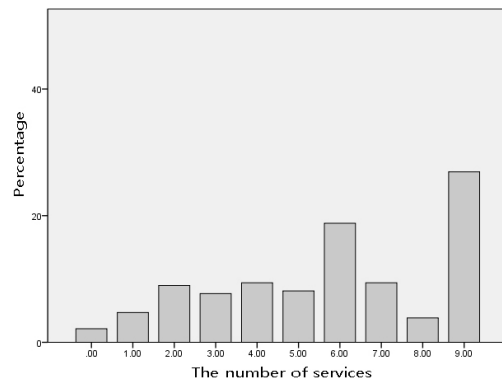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family friendliness and number of services used by each age group (N = 259)

Category	Family Friendliness				Number of services used M(SD)
	Safety	Accessibility	Convenience	Amenity	
	M(SD)	M(SD)	M(SD)	M(SD)	
Toddler (0~2 years) (n = 84)	2.80(0.44)	2.46(0.64)	2.52(0.60)	2.62(0.66)	5.91(2.84)
Preschooler (3~5 years) (n = 81)	2.94(0.36)	2.61(0.47)	2.69(0.49)	2.72(0.49)	5.01(2.37)
Primary schooler (6~11 years) (n = 94)	2.88(0.41)	2.42(0.64)	2.53(0.52)	2.64(0.51)	6.27(2.60)
Total	2.88(0.41)	2.49(0.59)	2.58(0.54)	2.66(0.56)	5.76(2.68)

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이나 주변 공간이 안전한지, 지원 프로그램을 거주지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서비스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그리고 서비스 시설이 위생적이고 쾌적한지 등에 대한 부모들의 평가는 보통 수준이었다. 자녀의 연령집단별 응답수준은 안전성이 2.80~2.94, 접근성이 2.42~2.61, 편리성이 2.52~2.69, 쾌적성이 2.62~2.72로 각 연령집단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부모들이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의 연령집단 별로 대표적이라고 간주되는 아홉 가지 지원서비스를 제시하고 각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도 위의 Table 2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 연구대상 부모들은 평균 5.76개의 지원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연령집단 별로 이용한 지원서비스 수의 평균은 영아기(0~2세), 유아기(3~5세), 학령기(6~11세) 집단에서 각각 5.91, 5.01, 6.27로 나타나 학령기, 영아기, 유

아기 자녀를 둔 부모 순이었다. 이는 연구대상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거나 양육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의 연령집단 별로 이용가능한 지원서비스의 최대 개수는 9개였고, 이용한 서비스의 개수에 따른 이용자의 수를 백분율로 산출해본 결과는 Figure 1과 같았다. 5개 이상의 지원서비스를



<Figure 1> Percentages of respondents by the number of services used

〈Table 3〉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f service usage by age group (N = 259)

Service	Toddler (0~2 years) (n = 84)	Preschooler (3~5 years) (n = 81)	Elementary schooler (6~11 years) (n = 94)
	Frequency(%)	Frequency(%)	Frequency(%)
Daycare center(all day)	79(96.3)	72(90.0)	N/A
Part time or night care center	52(63.4)	41(51.3)	N/A
After school childcare	N/A	N/A	71(77.2)
After school activities	N/A	N/A	51(55.4)
Children' library	50(61.0)	66(82.5)	82(89.1)
Outdoor playground for children	58(70.7)	47(58.8)	70(76.1)
Family leisure facilities	61(74.4)	57(71.3)	70(76.1)
Park for children and families	65(79.3)	55(68.8)	71(77.2)
Family caring service	36(43.9)	14(17.5)	43(50.0)
Family counseling	32(39.0)	14(17.5)	46(50.0)
Health management service	59(72.0)	37(46.3)	66(71.7)

Note. N/A: not applicable.

이용한다고 응답한 부모는 전체의 약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가 속한 연령집단 별로 각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 수와 백분율은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영아기(0~2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공원 이용률이 높았다. 반면, 가족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의 이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3~5세) 집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가족돌봄과 가족상담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보고한 부모의 수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령기(6~11세) 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약 90% 정도가 어린이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보고하였고, 그 외에도 모든 항목의

〈Table 4〉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parental satisfaction with services by each age group (N = 259)

Age group	Toddler (0~2 years) (n = 84)	Preschooler (3~5 years) (n = 81)	Elementary schooler (6~11 years) (n = 94)	Total
	M(SD)	M(SD)	M(SD)	M(SD)
Parental satisfaction with services	2.72(0.46)	2.82(0.40)	2.70(0.45)	2.75(0.44)

서비스에 대해 50% 이상의 응답자가 이용한다고 보고하여 비교적 고른 이용도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들에 대한 부모의 이용만족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았으며, 연령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 연구대상의 이용만족도 문항평균점수는 4점 척도에서 2.75로 나타나 2점인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3점인 ‘그런 편이다’의 중간점수를 기준으로 ‘그런 편이다’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양육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령집단 별로 산출한 만족도 점수의 범위는 2.70~2.82였다.

2.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과 다양성이 부모의 서비스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과 이용 서비스의 다양성이 부모의 서비스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집단별로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과 서비스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부모가 이용하는 지원서비스의 수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지원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 지수(VIF)는 독립변인별로 1.06~2.93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선, 영아기(0~2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용한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 중 쾌적성($\beta = .29, p < .05$)이 서비스 이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기 자녀를 위한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가 쾌적하고 위생적이라고 느낄수록 지원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이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은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서비스 이용만족도 변량의 약 37%를 설명하였다(Table 5 참조).

다음으로 유아기(3~5세) 자녀를 둔 부모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기(3~5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 중 안전성($\beta = .42, p < .001$)이 부모의 서비스 이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기 자녀를 위한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가 안전할

〈Table 5〉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satisfaction with services from family friendliness and diversity of services for parents of toddlers (N = 84)

Category	B	SE	β	t	R ²	F
Safety	.24	.12	.24	1.95		
Accessibility	-.09	.10	-.12	-.93		
Convenience	.22	.13	.28	1.73	.37	8.57***
Amenity	.21	.10	.29*	2.01		
Number of services used	.00	.31	.01	.14		

* $p < .05$. *** $p < .001$.

〈Table 6〉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satisfaction with services from family friendliness and diversity of services for parents of preschoolers (N = 81)

Category	B	SE	β	t	R ²	F
Safety	.46	.13	.42***	3.57		
Accessibility	.01	.13	.01	.06		
Convenience	.07	.12	.08	.54	.28	5.29***
Amenity	.10	.11	.12	.90		
Number of services used	-.02	.02	-.13	-.12		

***p < .001.

〈Table 7〉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satisfaction with services from family friendliness and diversity of services for parents of elementary schoolers (N = 94)

Category	B	SE	β	t	R ²	F
Safety	.45	.13	.41***	3.63		
Accessibility	-.02	.09	-.03	-.22		
Convenience	.16	.12	.19	1.37	.37	8.91***
Amenity	.12	.11	.13	1.11		
Number of services used	.04	.02	.20*	2.19		

*p < .05. ***p < .001.

수록 부모의 서비스 이용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서비스 이용만족도 변량의 총 28%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령기(6~11세) 자녀를 둔 부모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학령기(6~11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가족친화적 특성 중 안전성($\beta = .41, p < .001$)과 부모가 이용한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수($\beta = .20, p < .05$)가 지원서비스 이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하는 지원서비스가 안전하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학령기 자녀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부모

의 전반적인 지원서비스 이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 변량의 총 37%를 설명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고 양육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부모들이 어떠한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를 알아보고, 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과 얼마나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지가 부모의 서비스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실태

아동발달 및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측정변인인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 이용하는 서비스의 다양성, 이용만족도에 대한 연구대상 부모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우선 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에 대한 부모의 평가를 살펴보면, 본 연구대상 부모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지원서비스의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이 중간정도 수준 또는 이보다 높다고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서비스의 시설이나 장소가 안전한 편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비교적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위생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장소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집단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 대표적인 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에 대한 부모의 평가가 자녀의 발달단계에 관계없이 대체로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서비스 시설과 장소에 대한 부모와 가족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Lee et al., 2012), 본 연구대상 부모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지원서비스가 안전하다고 인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안전성, 접근성, 편의성 등과 같은 가족친화적 특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우수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지원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확보될 경우,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서비스가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비록 편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게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서비스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과 함께 이용대상의 욕구나 특성 등을 고려한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녀의 연령집단 별로 대표적인 지원서비스를 9가지씩 제시한 후 이용여부를 질문한 결과, 모든 연령집단의 부모들이 평균 약 5개 이상의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서비스 이용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5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고한 경우가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여 다수의 연구대상 부모들이 자녀가 어린 시기부터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요구를 모두 개별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던 과거의 신념에서 사회와 책임을 공유하여 가족 외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Lee et al., 2011; Shin, 2008).

한편,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속한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연령집단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어린이집이었고, 가족공원과 가

족레저시설에 대한 이용률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영아기 발달의 특성 상 신체적으로 성인에게 매우 의존적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부모가 동행해야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지원서비스는 어린이집이었다. 이는 최근 국가의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의 영향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다음으로는 어린이 도서관과 가족레저시설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유아기로 접어들면 보호와 양육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과 사회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모의 관심이 확대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어린이 도서관과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이용이 높았고, 그 외에도 가족공원, 옥외놀이공간, 가족레저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비교적 고르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아동은 자발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학교 교육 이외에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과 활동을 이어가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각 지원서비스 이용자 수에 대한 자료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전 연령집단에서 다른 지원서비스와 비교하여 가족상담의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가족상담서비스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인식하거나 혹은 다른 지원서비스들에 비해 이용가능한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Choi, Kim, Kim, & Park, 2011; Shin, 2008), 그 원인이 서비스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에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고안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모들은 자녀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자녀 집단에서 모두 동일하였다. 지원서비스 이용만족도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부모가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 프로그램과 활동의 내용 등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이용만족도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용한 지원서비스 중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와 함께 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이용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안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과 다양성이 부모의 서비스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과 다양성이 실제로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자녀가 속한 연령집단에 따라 그 영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 중 쾌적성이 서비스 이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서비스가 쾌적하고 위생적이라고 느낄수록 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부모의 이용만족도가 높

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영아의 부모들은 발달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신체적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이 시기 자녀의 건강상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위생과 쾌적성을 중시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아기 자녀를 둔 본 연구대상 부모들은 어린이집 다음으로 가족공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도 쾌적성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예컨대 Hong, Kim과 Ryu(2007)가 제안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녹지공간의 확보를 통해 자녀의 신체적 건강과 위생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기존 시설에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는 등 서비스 환경의 쾌적함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영아기 자녀의 부모와는 달리 가족친화적 특성 중 안전성이 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이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서비스가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의 요구가 지역사회의 서비스 시설, 공간, 장소 등 물리적 공간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안전성에 대한 요구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한 선행연구자들(Hong, Kim & Ryu, 2007)의 주장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서 생활영역을 가정 밖으로 확장하고 놀이터 등 지역사회시설을 활발하게 이용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신체조절능력이나 문제해결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자녀 주변의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문화 환경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령기 자녀의 부모들의 경우, 지원서비스의 네 가지 가족친화적 특성 중 안전성과 지원서비스의 다양성이 서비스 이용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가 안전한 특성을 가진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지원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나 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비교해볼 때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다양한지가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며, 이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볼 때 양육 지원체제와 관련된 부모의 요구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연구자(Lee et al., 2012)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부모들은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기를 희망하고 독립성을 증진시켜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학교생활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과외활동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친화적 특성 중에서는 안전성이 중요한 측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기 역시 자율적인 이동과 활동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험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환경에 접근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염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족친화적 특성 중 접근성은 자녀가 학령기인 집단뿐만 아니라 영아기와 유아기인 집단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가 있는지가 부모의 서비스 이용만족도와 무관하다기보다는 부모들은 자신

이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자녀가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과 다양성이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향후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 개발에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 강조되어왔던 바와 같이 지원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연령적합성이나 문화적합성과 같은 내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Choi, 2010) 이와 더불어 가족의 실질적인 요구에 민감한 서비스의 전달과 운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부모의 서비스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친화적 특성이나 다양성의 영향이 자녀가 속한 연령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녀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가족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앞으로의 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본다면, 향후에는 가족친화적인 지원서비스의 강화를 넘어 한 수준 높은 차원의 서비스 개발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중심 접근방법(family-centered approach)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unst, Johanson, Trivette와 Hamby(1991)에 따르면 가족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용어는 가족과 전문가가 협력하는 소비자 중심의 방식을 정의하기 위한 신념과 실재를 의미한다. 즉, 가족중심 지원서비스는 단순히 가족의 현재 요구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주기 위하여 아동과 가족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이

나 지원서비스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Dunst 등(1991)은 6가지 주요 가족 지원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서비스의 계획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가족과 가족이 속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강점과 약점,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소비자인 가족이 서비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 때 중요한 것은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가족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원리를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개발에 적용해 본다면, 지원서비스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여 아동의 발달과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서비스들을 현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해야 할 것이며(Park, 2012), 나아가 가족, 서비스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자들은 부모와 지원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Knoche, Sheridan, Edwards, & Osborn, 2010),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대상 가족의 문화와 자원을 존중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가 요구되며, 가족구성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이를 토대로 대상 가족에 적합한 개별화된 지원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Park, Alber-Morgan, & Fleming, 2011).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본 연구의 제한점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아동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분석결과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던 몇 가지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 주고 있으나, 이용실태에 관한 상세한 정

보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대신 가족친화적인 아동 발달 및 양육지원에 대한 서비스 개발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 의의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기관과의 거리,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률 또는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응답에 기초하여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이용자 관점의 정보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가족친화적 지원서비스의 효과는 서비스의 철학, 서비스 제공 인프라, 서비스 참여자 간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설명될 때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지원서비스의 철학이나 목적,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서비스 참여자를 통한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성, 연령, 학력, 직업, 지역 등 부모나 자녀의 배경변인과 관련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동발달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이용실태와 효과에 대한 이해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아동 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의 가족친화적 특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특성과 부모들이 평가한 서비스 이용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차후 효과적인 발달 및 양육 지원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측면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지원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정책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Choi, E. J., Kim, M. S., Kim, J. E., & Park, J. Y. (2011). A study on mental health improvement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urrent state of mental health enhancement policy and future plan. The Report of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1-R22-2, 3-8.
- Choi, H. Y. (2010). The policies of child rearing support service on family friendliness perspective. Presented at the annual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7.
- Dunst, C. J., Johanson, C., Trivette, C. M., & Hamby, D. (1991). Family-oriented early intervention policies and practices: Family-centered or not? *Exceptional Children*, 58, 115-126.
- Guralnick, M. J. (1998). Effectiveness of early intervention for vulnerable childre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2, 319-345.
- Hong, S., Kim, H., & Ryu, Y. (2007). *A research on design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Focusing on development of a model for work places and communities*.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al Institute.
- Hong, S., Kim, H., Ryu, Y., Souma, J., Cho, S., & Jin, M. (2007). *Development of a family-friendly community model*.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Knoche, L. L., Sheridan, S. M., Edwards, C. P., & Osborn, A. Q. (2010). Implementation of a relationship-based school readiness interventio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fidelity measurement for early childhood.

-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5, 299-313.
- Lee, M. H., Hong, S. A., Seo, M. H., Chung, M. J., Kwon, H. J., Lim, Y. M., & Shin, B. W. (2011). *Examining child rearing policies in South Korea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al Institute.
- Lee, S., Kim, H., Lee, K., Kwak, Y., & Chung, Y. (2009). *A research on development of the family-friendly village model*. Seoul: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Lee, Y. B., Bae, D. J., Lee, K. J., Oh, Y. K., Ju, W. H., & Han, S. I. (2012).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e of the family friendly social environmen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Park, B. Y. (2006). Family Policy in an Ageing and Low Fertile Society: Work-Family Life Balance Policies. *Journal of Situation and Welfare*, 22, 119-153.
- Park, J. H. (2012). Preventive supports for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Presented at the Fall Conference 2012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 Park, J., Alber-Morgan, S., & Fleming, C. (2011). Collaborating with parents to implement behavioral interventions for children with challenging behaviors.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43, 22-30.
- Sameroff, A. J., & Fiese, B. H. (2000). Transactional regulation: The developmental ecology of early intervention. In J. P. Shonkoff & S. J. Meisels (Eds.), *Handbook of early intervention (2nd Ed.)* (pp.135-15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in, H. (2010). An evaluation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s a family-friendly living environment.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7-53.
- Shin, H-K., & Suh, Y-S.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cale measuring life satisfaction of after-school child car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1), 101-111.
- Shin, Y. J. (2008). A case study on community resources needs in child birth and rearing. *Health Welfare Policy Forum*, 136(2) 81-90.

Received May 31, 2014

Revision received July 28, 2014

Accepted July 29, 2014